

# DDC 색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DDC Index

남 태 우(Tae-Woo Nam)\*\*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DDC에서 상관색인의 구조 |
| II. 문헌분류표에서의 색인의 조건과 기능    | 1. 상관색인의 수록용어      |
| 1. 분류표에서의 색인의 조건           | 2. 색인항목의 구성과 확장    |
| 2. 분류표에서의 색인의 기능 및 유형      | 3. 상관색인의 배열과 형식    |
| III. DDC 1판의 형태서지 및 색인의 적용 | 4. 색인어의 상관성(相關性)   |
| 1. 1판의 형태서지 분석             | 5. 색인어의 구성         |
| 2. DDC 2판의 '서설' 분석         | 6. 상관색인에서 참조의 유형   |
| 3. DDC 1판에서 주제색인의 적용       | V. 결론              |

### 초 록

도서색인은 일종의 위치탐색 장치체계로서, 일반적으로 텍스트에 나오는 용어의 집합과 텍스트 속에서 그 용어가 출현하는 위치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한다. 반면에 DDC 상관색인의 용어는 페이지 수를 지시하기 보다는 분류번호나 혹은 본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에 상응하는 범주어들을 가리킨다. DDC 색인은 DDC의 탄생 이상으로 그 중요성이 높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DDC 색인을 연구하는데 두었다. 상관색인은 본표나 보조표와는 정반대로 '표목 + 관점 + 분류기호'로 구성되어 있다. DDC에서 최초로 응용한 상관색인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기능을 종합하였으며, 또한 DDC 상관색인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키워드: DDC, DDC 색인, DDC 상관색인, DDC 상관색인의 구조, 상관색인의 특성

### ABSTRACT

A book index is a locator system that ordinarily connects a set of terms from a text of a book to the page where they occur in the book's text. The DDC Relative Index differs somewhat in both of this matters. Its terms refers to classification notations and their corresponding category statements as found in the schedule text rather than to page numbers. The index is the final equipment of a classification scheme. The index is of primary importance to any classification schem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DDC Relative Index.

Keywords: DDC, DDC Index, DDC Relative Index, Structure of DDC Relative Index, DDC Relative Index Character

\* 이 논문은 2010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

• 접수일: 2010년 8월 18일 •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3일 • 최종심사일: 2010년 9월 27일

## I. 서론

백과전서파 d'Alembert가 『백과전서: 과학, 예술, 기술 이론 사전』<sup>1)</sup>에 붙인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백과사전에서 정보를 배치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그가 '백과사전의 원칙'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전통적인 지식의 나무처럼 주제별로 배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경우는 '사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주제들을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었다.<sup>2)</sup>

알파벳 순서는 11세기 비잔틴 제국에서 제작한 백과사전인 『수다사전(Suidas)』<sup>3)</sup>에서도 이미 적용하고 있었다. 13세기에는 시토수도회(Cistercium)를 포함한 몇몇 수도회에서는 알파벳 순서를 따른 색인을 사용하였다.<sup>4)</sup> 파리 생빅토르 대 수도원(Abbeye Saint Victor)의 도서관은 16세기 초에 알파벳순으로 도서목록을 작성하였으며, Desiderius Erasmus 역시 많이 알려진 격언모음집 『아다지아(Adagia)』에서는 도서들을, 몇 년 뒤에 출판된 『동물지』에서는 동물들을 역시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가톨릭의 『금서목록』도 동일한 배열원칙을 따랐다.<sup>5)</sup>

하지만 알파벳 순서를 따른 배열이 흔해지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였다.<sup>6)</sup> 옥스퍼드 Bodleian 도서관 사서였던 T. James는 1605년에 출판된 도서목록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하고 싶었다. 그러나 설립자 Bodley 경이 전통적인 학문별 분류체계를 고집하는 바람에 알파벳순 도서색인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1876년에는 도서관계에서도 Cutter의 『사전체목록규칙』<sup>7)</sup>이 발표됨으로 목록의 사전체식 알파벳순 배열이 일반화되게 이르렀다. 현재는 당연히 알파벳순으로 정보를 조직하는 방식이(주제별로 정보를 정리하고 알파벳색인을 달던 방식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아주 천천히 옛 방식을 대체해 가고 있다.

도서색인은 일종의 위치탐색 장치체계로서, 일반적으로 텍스트에 나오는 용어의 집합과 텍스트 속에서 그 용어가 출현하는 위치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한다. DDC 상관색인은 이런 색인들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띤다. 상관색인의 용어는 페이지 수를 지시하기 보다는 분류번호나 혹은 본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에 상응하는 범주어들을 가리킨다. 또한 색인어와 본표 내에서 각각의 분류번호를 가지고 있는 범주어의 관계는 항상 둘의 개념적 내용을 일치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가끔 이 둘이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단순히 알파벳 철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1) Denis Diderot and Jean d'Alembert,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Paris : Andre Le Breton, 1751).

2) Peter Burke, *A Social History of Knowledge : From Gutenberg to Diderot*(Cambridge : Polity Press, 2000), p.184.

3) 고대 그리스에 관한 백과전서적(百科全書的) 사전(辭典)이다. 10세기 말경에 비잔틴에서 편집되었다. 정확하게는 '수다라 하여 '성채(城砦)'를 뜻하였다. 고대의 사전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으로 비잔틴의 문헌고증학의 결정체이다.

4) F. J. Witty, "Early Indexing Techniques," *The Library Quarterly*, Vol.35(1965), pp.141-148.

5) A. R. Taylor, *Renaissance Guides to Books*(Berkely-LA., 1945), pp.89-198.

6) A. Serrai, "Storia della bibliografia," *Rome*, 5 vols(1988-92).

7) C. A. Cutter,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Washington : GPO, 1876).

1876년 DDC가 창안되었을 때부터 DDC 상관색인은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관색인이 처음부터 모든 복잡성을 완벽하게 해결한 채 존재한 것은 아니다. 상관색인은 M. Dewey에 의해서 처음 창안된 방식으로서, DDC의 큰 특징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초판 당시에도 인기를 모았고, Dewey도 십진법을 고안한 것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였다.

상관색인에는 본표와 보조표의 표목과 주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용어들과 동의어, 유의어 등의 용어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상관색인을 이용하면 특정 주제의 여러 측면이나 관점을 한곳에서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관색인에 모든 용어들이 망라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관색인에서 찾은 분류기호와 주제가 일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최종 분류기호의 적절성 여부는 본표의 해당위치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

DDC 색인에서 채택하고 있는 색인 시스템은 주제상관색인이다. 상관색인은 본표나 보조표와는 정반대로 '표목 + 관점 + 분류기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같은 특성을 가진 DDC의 상관색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DDC 상관색인이 분류자에게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지 그리고 DDC 색인의 구조적인 면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 II. 문헌분류표에서의 색인의 조건과 기능

문헌분류표에서 아무리 훌륭한 색인일지라도 분류표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한다<sup>8)</sup>면 색인은 사 죽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장에서는 문헌분류표에서 색인은 어떤 조건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류표에서 적용되는 색인의 유형과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 1. 분류표에서의 색인의 조건

분류법에서 색인이란 부여된 기호법에 상응하는 분류표상에서 언급된 용어의 알파벳순 리스트이다. 즉 문헌분류에 상응되는 명사, 용어 등에 대한 알파벳순 목록을 의미한다. 색인에는 가능한 본표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주제의 상세한 부분과 함께 이들 용어의 모든 동의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색인이 갖는 기본적인 가치는 주제가 항상 분류표상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분류된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있다.<sup>9)</sup>

8) Aditya K. Ohdedar and B. Sengupta, *Library Classification*, 2nd ed.(Calcutta : The World Press Private Ltd., 1977), p.103.

분류표를 사용하는 목록작성자가 색인 작성자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분류표에 이러한 종류의 색인을 마련해야 한다.<sup>10)</sup> 알파벳순 주제색인은 분류번호 배정과 도서 검색시에 안내를 위해 설계되었다. 분류번호 배정에서는 도서가 포함하고 있는 가장 특정 표목이 결정적이며, 색인에서 표목에 대한 참조는 설정된 분류번호가 주어진다. 어떤 주어진 주제상에서 도서를 검색시에 색인에 대한 참조는 서가, 서가목록, 또는 주제목록에서 탐색할 때 번호가 부여된다.

동서를 불문하고 모든 분류학자들은 분류표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으로 색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분류표에서 색인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가적인 측면에서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志保田務, 高鷲忠美는 문헌분류표의 기본조건을 8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중에 "6) 색인의 준비"<sup>11)</sup>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鮎澤修, 芦谷清도 자료분류표의 기본조건의 하나에 "자료분류를 위해 형식류나 기호, 색인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sup>12)</sup>고 강조하였다.

한편 서양의 문헌분류학자들 역시 '상세하고 정확한 색인의 준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좋은 분류표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색인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3)</sup> D. N. Dutta는 훌륭한 분류와 분류표의 구성에 대한 평가에서 "훌륭한 색인이 있어야 한다."<sup>14)</sup>라고 하였다. Bliss도 분류법이 갖추어야 할 원리를 무려 32개 항목으로 강조하면서 24번째에 "분류표에서 색인: 모든 주제와 용어에 대한 알파벳 색인은 분류표에서 그들을 기호법으로 위치를 찾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sup>15)</sup>고 강조하고 있다. J. Mills도 "분류표에서 수용한 모든 류의 체계적 순차와 그 순차를 기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호법을 작성할 때에 그 때에야 알파벳 주제색인이 작성될 수밖에 없다."<sup>16)</sup>고 하였다. Richardson도 실제적 문헌분류표의 평가요소 중에 "분류표는 상세하고 특수색인을 제공하여야 한다."<sup>17)</sup>고 하였다.

또한 분류 현장에서 필요한 도구인 분류표에서도 '색인의 중요성'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

---

9) W. H. Phillips, *A Primer of Book Classification*, 5th ed.(London :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s, 1961), p.55.  
10) Brian Buchanan, *Theory of library classification*(London : Clive Bingley, 1979), p.101.  
11) 志保田務, 高鷲忠美, 資料組織法, 第3版(東京 : 第一法規, 1977), p.11.  
12) 鮎澤修, 芦谷清, 資料分類法(現代圖書館學講座 4)(東京 : 東京書籍, 昭和59(1984)), p.22.  
13) Ernest C. Richardson, *Classific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Hamden : the Shoe String Press, Inc., 1964), p.41. ; Bohdan S. Wynar,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7th ed, by Arene G. Taylor(Littleton : Libraries Unlimited, Inc., 1985), p.375. ; Grace O. Kelley, *The Classification of Books: An Inquiry into its Usefulness to the Reader*(New York : The H. W. Wilson Co., 1938), pp.66-82. ; Henry E. Bliss,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in Libraries and the Subject-approach to Books*, 2nd ed.(New York : The H. W. Wilson Co., 1939), pp.31-46.  
14) D. N. Dutta, *Library Classification: Manual*(Calcutta : The World Press Private Limited, 1978), p.83.  
15) Henry E. Bliss, *op. cit.*, p.45.  
16) J. Mills, *A Modern Outline of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London : Chapman & Hall, 1962), p.53.  
17) Ernest C. Richardson, *op. cit.*

DDC 22판 서론에서 '11.1에서부터 11.15 항목'까지 상관색인에 대한 정의, 기능,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sup>18)</sup> 또한 KDC 제5판에서도 '6. 상관색인'<sup>19)</sup>에 대한 설명을 서론에서 강조하고 있다.

Dutta는 “주제가 적합하게 색인이 된다고 한다면, 분류표상에서 어디에 나타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색인은 어떤 문헌분류법에서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또한 문헌분류 작업을 용이하게 돕기도 한다. 그렇지만 색인만으로 도서를 분류하는 일은 항상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엉뚱한 곳에 위치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색인은 점검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를 분류하는 유일한 도구로서 수용해서는 안 된다.”<sup>20)</sup>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분류법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에서 뿐만 아니라 훌륭한 분류법의 평가요소에서도 양질의 색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도 상관색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나아가서는 문헌의 주제결정을 할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색인이라도 가장 질 낮은 분류법보다는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색인은 분류현장에서 필수적인 도구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불과하다.

## 2. 분류표에서의 색인의 기능 및 유형

### 가. 상관색인의 기능

DDC 16판 'Dewey의 서설(Melvil Dewey's introduction)'<sup>21)</sup>에서 색인의 기본적인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본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알파벳순의 색인은 지난 54년간(1957년 당시)에 사용환경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아주 여러 가지 자료에서 모은 표목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한 뒤에 많은 새로운 표목은 판을 새로 할 때마다 첨가되었다. 색인은 도서의 분류기호를 배정하고 검색을 하는데 안내를 한다. 기호배당을 할 때에는 도서의 내용에 의해서 가장 특수한 표목이 결정되면 그것을 색인의 그 표목과 참조를 하여 가장 적절한 분류번호를 얻는다. 반대로 어느 주제의 도서를 찾고자 할 때는 색인을 참조하면 서가상에서 또는 서가목록 또는 분류목록에서 찾을 수 있는 분류기호를 알 수 있다. 새로운 주제의 도서가 출현했을 때는 그 새 주제(표목)와 그것의 동의어를 색인의 행간에 삽입 기재하고 색인의 표목(동의어)을 참조해서 결정한 분류기호를 적어두면 분류자의 미봉의 작업에도 통일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색인항목의 생성과정과 그 기

18)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2nd ed., edited by Joan S. Mitchell et al.(Dublin :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Inc., 2003), pp.lix-lxii.

19)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서울 : 동협회, 2009), p.9.

20) D. N. Dutta, *Library Classification: Manual*(Calcutta : The World Press Private Limited, 1978), p.80.

21)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Relative Index*, 16th ed. edited by B. A. Custer(New York : Lake Placid Club Education Foundation, 1958), pp.29-75.

22) *Ibid.*, p.34.

능을 강조하고 있다.

알파벳순 색인은 분류표상에서 용어의 위치를 정해주고, 주제의 관련된 관점을 모아주고, 다시 분류된 순서에 의해 분산된다. 그래서 색인은 '분류표의 체계적인 순서에 대한 알파벳순 키'이다.<sup>23)</sup> 분류표상에서는 용어(term)나 분류명(class-names)이 알파벳순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이다. 색인은 이용자들에게 주제의 자연어로부터 인공명사(즉 분류번호)에 이르기까지 안내하고 그래서 분류표상에서 주제의 적합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도서에 분류기호를 부여하여 분류자를 돕는 역할도 한다.

DDC 상관색인은 장서수가 대규모인 도서관에서 미리 분류전문가가 해야 할 분류작업의 대부분을 초보자가 할 수 있게 하며,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분류기호는 경비가 적게 들고, 보통 분류자에게 가능한 것보다도 더 좋고 통일된 결과를 가져오게 하며, 이전보다 노동절약을 할 수 있게 해준다.<sup>24)</sup>

Dutta도 유사한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다. "색인은 분류표에서 마지막 장비이다. 색인은 분류표의 체계적 순차에 대한 알파벳순 키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색인은 알파벳순 순차로 분류명으로 리스트 되거나 각각의 분류를 위해 분류번호를 배정함으로써 주제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색인이 비록 훌륭한 분류의 대안은 되지 못하지만, 체계적 배열, 즉 분류표의 분산으로 함께 모을 수는 없는 주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 색인은 분산된 관련 항목을 나란히 놓음으로서 주제 관련성을 나타낸다."<sup>25)</sup>고 그 기능성을 밝히고 있다.

Vickery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한 직접 참조로 알파벳순 색인보다 더 훌륭한 도구는 없으며, 이용자에게 정확한 주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sup>26)</sup>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알파벳순 색인일지라도 훌륭한 분류법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sup>27)</sup> 분류의 주목적은 관련 주제를 모으는 방식으로 도서를 배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주제간의 주제문제는 유사성으로 드러난다. 분류는 단지 도서의 위치에 대한 서가배열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도서를 분류하고 적합한 색인을 부여한 데만 국한된 것이라는 진술은 문헌분류의 기본적인 목적을 무시한 것이다.

W. C. B. Sayers와 A. Maltby 등은 색인은 불문가지로 '필수적인 도구'이다. 분류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받는 고민은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면서 훌륭한 색인은 두 가지의 기능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3) Aditya K. Ohdedar and B. Sengupta, *op. cit.*, p.102.

24)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for Arranging Cataloging and Indexing Public and Private Libraries and for Pamphlets, Clippings, Notes, Scrap Books, Index Rerumes, etc.*, 2nd ed. (Boston : Library Bureau, 1885), p.33.

25) D. N. Dutta, *op. cit.*, pp.79.

26) *Ibid.*

27) Aditya K. Ohdedar, B. Sengupta, *op. cit.*, p.103.

첫째, 체계적으로 배열된 분류 내에서의 주제의 위치를 알게 해 준다. 둘째, 분류에서 분산된 주제에 관련된 관점을 보여주지만, 분류가 복합주제의 모든 분과학을 함께 모이게 할 수는 없다. 이를 ‘분산된 관련 항목(distributed relative)’이라고 한다.<sup>28)</sup>

이처럼 색인이 비록 분류표를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색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본질적인 수단이 된다. 1) 체계적으로 배열된 분류표 내에서 주제의 위치를 찾는 것을 돕고, 2) 분류표에서 분산된 것 그리고 이들 분산된 관련성을 함께 불러 모으는 주제 관련성을 나타내는 주제에 관계된 관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색인은 분류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분류표를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J. Mills도 그 기능을 세 가지 관점에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알파벳 순차와 각각의 주어진 분류번호에서 분류명(분류표에서 수록하고 있는 명사나 동의어)으로 배열되어 주제위치에 대한 키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둘째, 체계적 배열에서 분산되어 있는 한 주제의 관점이나 관련있는 항목을 한 곳에 모아 보조적인 부류표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표 1〉 분산된 주제의 관점

Coal: chemical technology	662.6
Coal: geology	553.2
Coal: Mineralogy	549.8
Coal: Economics	338.272

위의 표에서처럼 분류표에서는 분산된 한 주제의 각각의 관점을 색인에서는 주제하에 집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이미 분류된 주제(특히 복합주제)가 어느 곳에 있는지 기록에 의해 분류번호를 부여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그렇지만, 분류작업의 일관성은 각각의 분류내에서 엄격한 패킷공식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실제에서 색인은 극소의 도움밖에 받지 못한다.<sup>29)</sup>

도서에 분류기호를 부여하는 경우 색인의 효용에 관해서 Dewey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 색인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분야의 각 주제에 관해서 기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색인에 부여된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전문가가 분류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정확하다.
- 2)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일관된 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 3) 분류기호를 부여하는 노력이 절감된다.<sup>30)</sup> 즉, 노동절약형이 된다.

28) Arthur Maltby,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es*, 5th ed.(London : Andre Deutsch, 1975), p.68.

29) J. Mills, *A Modern Outline of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London : Chapman & Hall, 1962), pp.53

30) 丸山昭二郎, 丸山泰通 編, DDC, LCC, NDC 圖書分類 記號變換(東京 : 丸善株式會社, 昭和59(1984)), p.78.

단 색인을 이용해서 분류기호를 부여하는 경우는 색인에서 얻은 기호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반드시 본표에서 계층 구조안에서의 주제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기호를 부여(또는 주기에 지시사항이 있다면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부호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분류표에 정통한 분류담당자가 본표에서 주제로 접근할 경우에도 Dewey에 의하면 ‘본표만을 이용해서 기호를 부여해라. 그리고 색인을 이용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 주제에서 자료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색인에 의해서 얻어진 분류기호가, 직접 분류배가된 서가상의 자료나 분류목록으로의 안내가 된다’는 것이 색인의 효용이라고 Dewey는 말하고 있다. 즉 색인은 ‘단어 → 기호 → 본표’, ‘단어 → 기호 → 자료’의 양쪽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DDC의 색인에는 각종 참조가 채용되어 색인만으로 특정주제의 본표안의 위치나 자료로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컴퓨터로 입력된 서지데이터의 검색에 관해서는 ‘단어 → 기호 → 문헌’이라는 과정에 따른 접근은 주제에 의한 검색의 유력한 수단이 된다고 생각한다.<sup>31)</sup> DDC 상관색인의 ‘단어 → 기호 → 본표’의 기능은 S. R. Ranganathan의 분류이론의 3단계론과 유사하다.

이상과 같은 색인의 기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록어(색인어)에 분류기호를 부여해 본표상의 주제의 위치를 지시하여 주고 본표상의 주제어에 대한 접근점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둘째, 전문가가 분류한 것과 같은 정확한 분류결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특정 주제에 관해 일관성 있는 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류기호 부여의 노력이 절감된다. 즉 노동절약의 장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 색인을 사용하여 분류기호를 부여할 경우, 반드시 본표에의 계층구조상에서의 주제의 위치가 정확한지를 대조확인 하여야 한다. 즉, ‘색인어 → 기호 → 본표’ 순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 나. 특정색인과 상관색인

상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분류표에서 사용되는 색인에는 ‘특정색인(specific index)’과 ‘상관색인(relative index)’의 두 유형이 있다. 특정색인은 본표상에서 언급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만 하나의 저록만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Sayers는 “각각의 주제와 주제의 모든 측면에 대해 한 위치만을 갖는데 그래서 각각의 저록에 대해 하나의 분류기호만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였다.<sup>32)</sup>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도 “Brown의 『주제분류법』에서와 같이 각 주제에 단 하나의 색인표목을 부여한 색인”<sup>33)</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직접색인은 분류표상에서 각각의 주제를 위해 작성된 저록에서 동의어를 포함한다. 한 곳이라는 ‘동소(one-place)’ 개념은 Brown의 『주제분류법』에서부터 창안된 것인데, Sayers가 만들어

31) Ibid.

32) W. C. Berwick Sayers, *A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London : Grafton, 1967), p.93

33)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개정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낸 개념이다. 그러나 '직접색인'은 틀린 명칭이다. Brown의 특정색인은 불완전한 상관색인이다.<sup>34)</sup> 이것은 하나의 한정된 위치에 제시된 주제의 모든 부분을 위치시키게 위해 시도된 것이지만, 실재상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Brown은 분류표상에서 언급된 각 주제에 저록을 제시하였으며, 그의 색인은 종속적 일반적 관점의 원리를 모든 이용자들이 알게 하였다. 그렇지만 이 가설은 틀린 것이다. 분류학자나 분류전문가들은 특정 주제의 관점에서 연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전은 '화폐의 관점'으로부터 연구될 수 있고, 또는 '경제적인 관점', 또는 '고고학자의 관점'에서 연구될 수도 있다. 직접색인은 주제의 다른 관점이나 나타난 어떤 주제의 다른 내용은 무시된다. 직접색인은 그 명칭의 우연한 알파벳 형태에 따라 관련주제가 분리되기도 한다.

그는 만족할만한 분류표의 특성으로서 Dewey의 상관색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특정색인이 상관색인 이상으로 단순함과 용이성에 신뢰성을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색인은 인쇄 부피가 적지만, 실재상으로 도구의 유용성에서는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비본질적인 알파벳 배열형식에 의해 다양한 주제의 관점이나 또한 분산된 관련 주제를 무시하기 때문이다.<sup>35)</sup>

각각의 저록어가 하나의 기호를 갖게 되는 '특정색인(specific index)'을 '동소색인(one place index)'이라는 명칭도 같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동소색인과 대비되는 색인도 마찬가지로 특정적이기 때문이다. 동소색인은 간단한 조합식 분류표에서처럼 각각의 개념이 분류표의 한곳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 효율적이다. 그러나 열거식 분류표나 대규모의 조합식 분류표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개념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데는 그와 같은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에 대하여 틀림없이 둘 이상의 기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분류표에 대해서는 '상관색인(relative index)'을 작성해야 한다.<sup>36)</sup>

반면에 '상관색인'은 많은 선호도와 유용성으로 거의 모든 서지적 분류표에 적용된다. 그러나 때로 분류하는 동안 많은 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혼동을 가져오기 쉽고, 그것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게 한다. 상관색인은 실제로 모든 가능한 관점에서 보여질 수는 없다. 상관색인은 분류표상에서 이미 준비된 주제의 관련성을 모두를 보여줄 수 없다. 예컨대 'Civil Engineering'이나 'Mechanical Engineering' 등은 저록이 있지만 'Engineering Coil'은 없다. 후자는 분류표의 반복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상관색인은 인쇄할 목적으로는 부피가 크다.

Dewey의 상관색인이 문헌분류표에 관련되는 한 최초로 적용된 훌륭한 실례이다. Sayers에 의하면 상관색인은 "분류표상에서 각 아이템에 대한 저록을 보여주며, 매 저록아래 '관점', '관점별' 그리고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는 이들 각각을 분류번호로 공간을 주는 것인데 이는 각

34) Aditya K. Ohdedar and B. Sengupta, *op. cit.* p.104.

35) D. N. Dutta, *op. cit.*, p.80.

36) Arthur Maltby, *op. cit.*

항목 하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관점은 주제로부터의 관점과 관계로 간주하고 분류기호는 이들의 개별이라고 했다.”<sup>37)</sup> 즉, 상관색인이란 열거식 주제로 언급되고, 모든 동의어와 큰 범위의 다른 주제에서 각 주제의 관계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상관색인은 이용하기 용이하지 않고 부피가 크고, 논리적이거나 자명하지는 못하지만, 특정색인 보다는 완전한 형식이다. 그러나 상관색인이 우수하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상관색인의 이용은 보조표에서 주제를 위치시키는데 제한되지 않으며, 서가상에 주제를 위치시키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의 서가배열상에 대해서 이용자의 키라는 사실이다.<sup>38)</sup>

완전한 상관색인에 대한 최고의 예는 Encyclopaedia Britannica일 것이다. Brown과 Dewey색인에서 저록간을 실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Brown과 Dewey색인 비교

Brown	Dewey	
Eggs F601	Eggs	
	birds	598.233
	cookery	641.665
	experimental medicine	619.5
	food comprehensive works	641.365
	nutrition home economics	641.12
	production	
	economics	338.176 5
	poultry husbandry	636.5

DDC 색인에서 보여준 대부분의 상호관계는 Brown의 지역구분표에서 기입된 것이다. Brown은 상관색인이 분류보다는 목록쪽에 속한 것으로 믿었다. Brown의 색인은 특정색인이며 Dewey 색인은 상관색인이다. Cutter의 전개분류표의 제7표와 LCC 대한 색인들은 다소는 상관적이다. 이들 색인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sup>39)</sup>

■ 상관색인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 1) 간편한 알파벳순으로 자명하다.
- 2) 주제가 각각의 부표목에 기호가 취급되거나 주어질 수 있어 대안적 방안이 각각의 표목하에 표시된다.

37) W. C. Berwick Sayers, *op. cit.*

38) *Ibid.*

39) W. H. Phillips, *op. cit.*, pp.55-56.

- 3) 주제를 관점별로 다양한 분류자가 다른 위치에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 4) 주제의 관점별로 분류하는데 다양한 위치가 리스트 된 반면에 직접색인은 다른 수단에 의해 확인된다.
- 5) 주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으로 혼란을 야기 시키기 쉽고 따라서 결정을 잘못 유도할 수 있다.
- 6) 가능한 모든 관점들을 보여줄 수 없으므로 비판적이거나 선택적일 수 있다. Dewey 색인에서 특이한 유형의 사용은 유에서 주제를 좀 더 세분화라고 할 때 보여준다.
- 7) 인쇄목적으로 부피가 크다.

■ 특정색인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 1) 완전한 동소위치(one-place) 분류는 이론적으로 이상적이다(그렇지만 결코 실행 시킬 수 없는 유토피아적 분류이다).
- 2) (색인의) 부피가 적다.
- 3) 공중의 이용을 위해 재발행하기 용이하다.
- 4) 혼란의 감소
- 5) 그들 명칭의 부수적 알파벳 양식에 의해 관련된 주제의 분산 가능성

문헌분류에서 색인은 부가적인 것이며, 문헌분류를 용이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표를 의미한다. 색인 없이도 도서를 분류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색인을 점검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방법의 작업을 추종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Brown은 색인과 지역구분표를 사용하는 분류자에게 주제분류법으로 작업을 할 때 조언을 할 수 있다.

### Ⅲ. DDC 1판의 형태서지 및 색인의 적용

이 장에서는 DDC 1판은 '형태서지적'인 면을 2판은 '내용서지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주제색인'은 1판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상관색인'은 2판에서부터 기원하기 때문이다. 1판과 2판에서 색인이 갖는 가치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1. 1판의 형태서지 분석

1876년에 발행된 DDC 1판에서 색인의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형태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DDC 초판의 형태서지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sup>40)</sup>

40) DDC 1판과 2판의 서지형태에 대한 상세 연구는 남태우, "DDC 초판과 2판의 비교연구," In 문헌정보학논총: 리재철교수 정년기념논문집(서울 : 구미무역(주), 1994), pp.183-216을 참조할 것.

〈표 3〉 DDC 1판의 형태서지

1) 표제지 및 표제지 이면:	[1-2] 표제지 이면에 1876년 M. Dewey 판권 인쇄
2) 서문:	[3]-10(2판의 경우에는 서언이라고 명명됨)
3) 철학류에서 역사류까지 류명칭:	[11](류(class)라는 명칭이 없이 9개류의 리스트가 되어 있고, 총류는 리스트 되지 않았다)
4) 강표(divisions):	[12]강(divisions) 명칭을 사용
5) 목의 표(sections):	13-22(목의 명칭이 없다)
6) 주제색인(subject index):	[23] - 40
7) 해설(Explanations):	[41] - 42
8) 주제목록(subject catalogue):	[43] - 44

이상과 같이 총 4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의 DDC에 관한 모든 연구 및 텍스트에서는 42페이지로 분석하고 있다.<sup>41)</sup> 마지막 주제목록의 2페이지([43] - 44)를 없는 것으로 간과한 데서부터 생긴 착오이다. 이는 DDC 연구 초창기에 1판의 원본을 직접 참고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인용에서부터 생긴 오류이다. DDC 초판의 페이지는 42페이지가 아니라 44페이지이다. 이러한 오류는 서양서에도 나타난다.<sup>42)</sup>

DDC 1판과 2판을 비교해 보면 우선 서명부터 다르다. 1판의 서명은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u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a Library』<sup>43)</sup>인데, 2판의 서명은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for Arranging Cataloging and Indexing public and private libraries and for Pamflets, Clippings, Notes, Scrap Books, Index Rerums, etc.』<sup>44)</sup>이다. 서명에 나타난 내용만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몇가지 특이사항을 알 수 있다.

첫째, DDC는 ‘Dewey Decimal Classification’의 두문자어 약어이다. DDC 초판은 원래 1873년 미국 Amherst대학 도서관의 장서와 목록을 배열하기 위한 도구로 고안되어 1876년에 공간된 이래,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류표로 자리잡고 있다. 본서명에 나타나는 ‘Dewey’는 이를 창안한 Melvil Dewey(1851-1931)의 이름을 딴 것이고, ‘Decimal’은 이 분류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의 기호를 십진식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DDC로 호칭하고 있는 근원은 2판부터이다. 이는 본 서명에 기술된바 처럼 ‘Decimal Classification’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고 있음에서 기인한다. DDC의 명칭은 초기에는 다양하게 호칭되었

41) 최정태, 양재한, 도태현 공저, 문헌분류의 이론과 실제, 개정판(부산 :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p.95. ; 김명옥 저, 자료분류법(서울 : 구미무역(주), 1986), p.56.  
 42) Aditya K. Ohdedar and B. Sengupta. *op. cit.*, p.90. ; H. E. Bliss, *op. cit.*. ; R. marcella and R. Newton, *A new Manual of Classification*(Hampshire : Gower, 1994), p.72.  
 43) Melvil Dewey,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u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a Library*(Mass. : Amherst, 1876).  
 44) M.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for Arranging Cataloging and Indexing Public and Private Libraries and for Pamflets, Clippings, Notes, Scrap Books, Index Reums, Etc.*, 2nd ed.(Boston : Library Bureau, 1885).

는데, 'Amherst classification', 'Decimal plan', 'Dewey's system' 또는 'DC'나 'Decimal Classification' 등의 명칭이다.

둘째, 분류대상 자료의 유형화이다. 2판에서는 분류할 수 있는 자료의 범주로 본서명에 1판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고 있다. 즉 1판의 분류대상 자료의 유형을 'Book's and Pamphlets' 한정 짓고 있음에 반하여, 2판의 경우에는 개정 및 전 확대판(revised and greatly enlarged edition)으로 출판된 것이지만, 자료의 대상을 1판보다 광의적으로 'Pamphlets, Clippings, Notes, Scrap Books, Index Rerums' 등을 본 서명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다.<sup>45)</sup> 1-2판의 서명에 분류대상 자료명이 기술된 것은 특이한 사항이다.

셋째, DDC에서 적용된 색인의 형식명이 서명에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Dewey가 강조한 DDC의 또 다른 발명이다라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1판에서는 색인의 명칭은 '주제색인(subject index)'인데 비해 2판은 '상관주제색인(relative subject index)'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상관'이란 말은 2판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이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상관색인' 또는 '상관주제색인(relative subject index)'의 구조는 2판부터 적용되어 명명된 것이다. 이는 실제로 색인을 분석해보면 1판은 상관색인으로 배열되지 않았다. 1판의 주제색인에서 그 사용법을 "이 알파벳순 색인에서 주제를 찾아라. 주제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은 분류번호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도서관의 전체 자원은 주제목록, 서가목록 또는 서가상에서 분류번호 아래서 찾을 수 있다."<sup>46)</sup>라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다.

1판의 총페이지 수가 44페이지인데 '주제색인(subject index)'이 차지하는 페이지가 [23] - 40로 17페이지에 달한다. 색인어의 추출에 노력을 얼마나 투자하였는지, 또한 분류표에서 색인의 위치를 가능하게도 하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2판에서 '이용자에 대한 주의(note to users)'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조표를 채택하고 있는데, Table 1.- Geographical Divisions, Table 3, Part 1.- Languages and Literatures. Table 3, Part 2.- Philological Divisions of Languages를 만들어 부분적으로 조기성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2판의 '상관주제색인(Relative subject index)'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조기성을 갖는 보조표와 상관주제색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는 색인이나 보조표가 분류표상에서 주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보조표의 구분은 3판에서부터 확대되고 색인으로부터 분리된다.

## 2. DDC 2판의 '서설' 분석

DDC 2판의 '서설(introduction)'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설'이라고 한 것은 1판

45) 남태우, 전계논문, p.187.

46) Melvil Dewey,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u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a Library*(Mass. : Amherst, 1876), p.23.

에서는 '서언'에 해당되는 'preface' 용어를 사용하고, 2판에서는 '서설(序說)' 즉 'introdu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Comaromi가 분석한 바처럼 "DDC 2판에 대한 '서설'은 서론적 자료 이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sup>47)</sup> 이병수도 "모든 십진분류법의 원전이 되는 것은 Dewey 분류법이며, 이 Dewey의 분류법의 구성원리와 운용방법을 상세하게 말해 주는 것은 그 서설이다. 그러기 때문에 십진법을 알려면 DC를 읽어야 하고 그것의 구성원리와 운용방법을 알려면 그의 서설을 읽고 익히어야 한다."<sup>48)</sup>고 강조하고 있다.

초판 발행 이후 9년 후(1885)에 개요표 12페이지, 본표 178페이지, 색인 80페이지의 크기로 초판의 내용을 대폭 개정 증보하여 발행되었다. 제2판은 여러 면에서 차후 65년간(16판) 이 분류표의 형식과 방침을 설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판의 하나로 간주된다.<sup>49)</sup>

2판에서의 '서설'은 전술한 바처럼 초판의 서문을 전제하면서 필요로 한 부분에서는 보충적 설명과 수정 보완한 형식을 취하고, 특히 각 단락별로 키워드를 고딕체로 그 단락에 우선시키고 있다. 그 키워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DDC 2판의 '서설'의 구성

- 
- 1) Origin and need of an improved system(21p),
  - 2) Economical, Practical, Invention of Subject Index(22p),
  - 3) Theory of the table of classes, Form distinctions(23p),
  - 4) Choice and arrangement of heads(25p),
  - 5) Sequence of allied subjects, Co-ordination(26p),
  - 6) Minute classification, Decimalism(27p),
  - 7) Procrustean critics(28p),
  - 8) Mnemonics, Practical aid(29p),
  - 9) Mnemonics applications(30p),
  - 10) Brevity vs. exactness, Catch-titles, Relativ subject index(31p),
  - 11) Uniformity in classing secured(33p),
  - 12) Index made by specialists(34p),
  - 13) Relativ location(35p),
  - 14) Permanent shelf numbers(36p),
  - 15) Book numbers, Accession, Author, Chronological(37p),
  - 16) Special libraries, Endowments, Sizes on shelves(38p),
  - 17) Arabic numerals, Advantages, Catalogs(40p),
  - 18) Faults of dictionary catalog(41p),
  - 19) Summary of advantages, Charging systems(42p),
  - 20) Criticisms and answers(43p),
  - 21) Acknowledgments(44p)
- 

47) J. P. Comaromi, *The Eighteen Editions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Albany : Forest press, 1876), p.118.

48) 이병수 역, 圖書分類法序說 : 멜빌·듀이의 序說(Melvil Dewey's Introduction by Melvil Dewey Lake Placid Club N.Y. Dec. 10, 1926 in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49) Lpis M. Chan et. a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 practical guide*, 2nd ed.(New York : Forest Press, 1996), p.5.

〈표 4〉에서처럼 서설의 구성이 21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있다. 서설에서 사용된 키워드 모두가 22판에까지 답습되고 있는데, 다만 논리가 확대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표 4〉에 기술된바 처럼 10), 12)-13) 번째 항목에 '상관색인'에 대한 설명을 이론적으로 전개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항목이 19) 번째 항목인 대출시스템(charging system)이다. 여기에서 Dewey 자신이 'DDC의 특징'을 15가지로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15) 색인은 분류목록에서 가장 큰 장애인 해답을 제공해 주며, 분류 및 사전체 시스템의 장점을 최초로 만족시켜 주었다<sup>50)</sup>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2판 이후의 개정판에서도 계속적으로 적용시켜온 규칙이다. 마지막 15) 항목에 색인의 중요성을 재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ewey가 '색인이 DDC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한 공언을 이해할 수 있다.

2판의 색인항목의 수도 초판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대폭 확대되었는데 이는 본표의 항목수가 크게 확장되어 그 결과로서 8,599개 항목으로 늘어난 것이다.

2판의 총 291페이지는 1판의 44페이지에 비해 무려 7배가량 늘어난 숫자이다. 이는 곧 본표의 전개항목의 숫자의 증가와 서문의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대폭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판에서 2판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변경된 사항을 Comaromi가 13개 항목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색인에 관한 내용이다. 13) 지금은 상관주제색인인 주제색인은 거의 2,000에서 10,000항목으로 확장되었으며, 표에 구분된 주제들은 굵은 활자체로 색인에서 지시되어 있다<sup>51)</sup>고 분석하였다.

항목수의 대폭 확장과 색인에서 '상관'이라는 말의 처음 적용, 그리고 배열방법상에서 굵은 활자체의 기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된바 처럼 DDC에서 색인의 기원은 1판이지만,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상관색인의 기원은 2판에 기원한다.

### 3. DDC 1판에서 주제색인의 적용

DDC의 창안 당시 1,000구분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매우 정치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130여년 전에 여러 분류법 중에서 상세하게 구분한 것이 DDC의 특징 중 하나였다. 그 당시에 DDC처럼 상세한 주제분류법은 없었다. Dewey는 정밀분류의 유효성을 확신하였고, 또 사실 분류법은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구분법이 정밀한 경우에 주제의 체계적인 배열안에서는 탐색하는 주제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워진다. 상관색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록어에 분류기호를 붙이고

50) M.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for Arranging Cataloging and Indexing Public and Private Libraries and for Pamphlets, Clippings, Notes, Scrap Books, Index Reums, Etc.*, 2nd ed.(Boston : Library Bureau, 1885), p.42.

51) J. P. Comaromi, *op. cit.*, pp.154-155.

그 분류기호를 매개로 해서 본표, 서가상의 자료, 서지류 같은 체계적으로 배열된 주제로 이끌어가는 방식은 Dewey가 창안한 상관색인이다.

‘주제색인(subject index)’은 이 시스템 [DDC]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sup>52)</sup> J. Mills도 이에 동의하면서 “색인은 주제의 위치에 대한 키”<sup>53)</sup>라고 하였다. 1판의 색인([23] - 40페이지)은 Dewey가 ‘주제색인’이라고 지칭하듯이 주제의 열거색인으로서 색인 항목 수는 2,642개 항목(연구자가 직접 계수한 수치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치로 보면 본표의 930개 항목 수 보다 색인의 항목수가 거의 3배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연유로 Dewey가 ‘상관색인이 DDC의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1판의 분류와 색인의 단순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 도서관에서조차도 너무 세분되었다는 비평을 받았다.<sup>54)</sup> 이는 본표의 구성비보다 색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배 이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얼마 후 상관색인의 위대한 효력이 일반인들에게 인정됨에 따라 점점 이용이 확대되어 더욱 정교한 세목의 전개가 요구되는 반전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수천개의 주제에 대한 기호법의 단순성과 색인의 편의성이 DDC 사용을 더욱 권장하게 되었다. Dewey가 논리적인 순서보다는 실제적인 편의성에 의도를 두었다는 것은 1판의 서문에 잘 표현되어 있다.<sup>55)</sup>

Dewey는 1판의 서문에서 “알파벳순 주제색인은 책을 찾고 번호를 부여하는데 안내역할을 해 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번호를 부여하는 데에는 그 책이 포함하는 가장 상세한 표목으로 결정된다. 어떤 주어진 주제에 관해 책을 찾는데 있어, 색인 참조는 서가나 서가목록, 주제 목록상에서 찾은 것을 기반으로 번호를 줄 것이다. 색인은 각각의 주제 뒤에 그것이 할당된 분류번호를 준다.”<sup>56)</sup> 1판 색인의 활용성을 강조하였다.

전술한 바처럼 DDC 1판은 단지 921개의 범주어(1,044개의 고유 용어로 구성된)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그것의 색인어는 이러한 분류번호를 가지지 않는 2,765개 이상의 색인어와 연결되었다. 요약하자면 색인된 개념의 수는 실제로 본표의 범주에 있는 것의 거의 3배 정도 확장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DDC의 본표가 더욱 더 잘 개발될수록 색인에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은’ 종류의 개념어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수의 감소는 DDC 7판에서부터 본표의 주기의 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DDC 7판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세부 주제가 분류로 포함되어야 할지에 관해서 논의되었으며, 이들

52) M.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for Arranging Cataloging and Indexing Public and Private Libraries and for Pamphlets, Clippings, Notes, Scrap Books, Index Reums, Etc.*, 2nd ed.(Boston : Library Bureau, 1885), p.32.

53) J. Mills, *op. cit.*

54) Sarah K. Vann, “Toward the Seventeenth, Dewey,” *LRTS*, Vol.8, no.2(1964), p.172.

55) Melvil Dewey,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u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a Library*(Mass. : Amherst, 1876), p.4.

56) *Ibid.*, p.6.



하부 주제들은 자신의 고유한 분류번호를 가지지 않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주기는 지금은 DDC 내에 수도 없이 많지만, DDC 22판 서문의 7번째 섹션, 특히 7.18 '포함주(Including Notes)'에 잘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주기들은 확실한 하부 분류기호가 만들어 있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는 주제들을 보여주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관색인은 DDC 초기부터 감자라는 개념이 포함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많은 개념들을 규칙적으로 포함시켰다.

강조한 바처럼 그는 알파벳순 색인은 DDC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단언하였다.<sup>57)</sup> 이러한 언급은 이러한 종류의 색인이 분류표에서는 분산되어 있는 모든 기호를 어떤 개념의 명칭아래에 함께 오도록 함으로서 상호관계를 보여준다는 사실에서 유래된 것이다.<sup>58)</sup> Dewey가 주제색인에 대한 절실한 요구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색인에 매우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DDC에서 색인은 상세하고 상관적이어야 한다. DDC 2판에서 Dewey는 “이 주제 색인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 분류목록의 가장 큰 결함은 목록에서 도서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필요할 때 어디서 찾을까를 아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다.”<sup>59)</sup>라고 기술했다. 그리고 Dewey는 그의 상관색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선적으로 도서를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sup>60)</sup>

몇몇 저명한 분류목록의 반대론자들은 책을 먼저 어디에 분류하고, 그 후에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상관주제색인을 그들의 강한 반대를 제거하는 데에 수용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Bliss가 이른바 “주제 - 색인 환상”의 초기 단계를 표현한 것이다.<sup>61)</sup>

DDC 16판 'Dewey의 서설'<sup>62)</sup>에서도 분류목록에 대한 제일로 심한 반대론은 도서를 분류할 때에 어느 곳에 배정함이 좋은가 하는 것을 알아내기가 곤란하다는 점과 일단 분류한 도서를 다시 찾고자 할 때에 어느 곳에서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양한 층의 사서 또는 동일 사서라도 분류하는 시간이 경과하여 다룰 때는 동일주제 또는 유사주제의 도서를 아주 다른 곳에 분류할 수도 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년간 분류작업을 혼자서 모두 했던 곳에서는 어느 정도 분류기호를 통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주제에 대해서 시간이 경과하여 다룰 때는 그 동일주제에 대해서도 전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다른 분류기호를 배당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분류에 혼란이 생긴다.

57) H. E. Bliss, *op. cit.*, p.199.

58) Arthur Maltby, *op. cit.*, p.102.

59)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for Arranging Cataloging and Indexing Public and Private Libraries and for Pamphlets, Clippings, Notes, Scrap Books, Index Rerumes, etc.*, 2nd ed.(Boston : Library Bureau, 1885), p.31.

60) *Ibid.*, pp.31-35.

61) *Ibid.*

62)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Relative Index*, 16th ed. edited by B. A. Custer(New York : Lake Placid Club Education Foundation, 1958), pp.29-75.

그러나 다행히도 실제적인 유용성은 이러한 다양한 사조에 순응해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동일 성격의 도서는 언제나 동일한 곳에 놓여져서 그 곳이 어느 곳인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기만 하면 된다. 요어가 있는 상관색인은 이러한 두 요구에 응할 수 있게 고안되고 조직되었다. 그것은 분류작업자의 앞에 놓이는 어느 주제의 동일면에 관한 도서는 동일 위치에 분류되고, 이 도서를 찾는 어떤 이용자이던 바로 그 위치를 참조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분류는 좋은 분류표의 모든 요구를 구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63)</sup> 반대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으면 그 분류표는 실패한 것이다. 그것은 어느 분류표이던 실제적 실험을 경과한 후에만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분류목록에 대한 유명한 반대론자 몇몇은 이 상관색인은 먼저 도서를 분류할 위치와 그 다음에는 그것을 검색할 위치를 결정하여 준다는 장점을 알고서 그들의 가장 강경한 비난을 그만 두겠다고 하면서, 확실히 본 색인보다 치밀하고 참고하기 쉬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sup>64)</sup>라고 동의하고 있다.

E. Edwards는 그의 저서 『도서관의 회고록(Memoirs of Libraries)』<sup>65)</sup>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즉, “분류에서 종종 문제를 야기시켰던 ‘모호함’과 ‘복잡성’의 반대는 분류에서 목록이 저자색인과 마찬가지로 알파벳순 주제색인이 보충될 때에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sup>66)</sup>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DDC 탄생 이전에 도서관 분류목록에 붙어있는 주제색인이 거의 실용성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sup>67)</sup>

그러나 Dewey는 이를 의심없이 연구하였다. 그래서 색인 관념은 과도하게 사용되었고, 지나치게 색인의 가치를 신뢰하였다. 저 유명한 “금모래 쌍둥이(gold-dust twins; 유명한 클리너 제품)” 처럼 모든 색인업무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색인은 도서관 장서가 아무리 혼잡하더라도 정연하게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 색인은 질서나 무질서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주제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위치를 찾게 해준다. 이와 같은 것은 분류에 있어서 잘못된 방법이다. 말하자면 소위 Bliss가 회화화 한 “주제 - 색인 환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sup>68)</sup>

실제로 색인은 훌륭한 분류법의 빈약한 대응물에 불과하며, 심지어는 불충분한 분류법만도 못하다. 심지어는 색인은 분류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파괴적이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말해 분

63)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for Arranging Cataloging and Indexing Public and Private Libraries and for Pamphlets, Clippings, Notes, Scrap Books, Index Rerumes, etc.*, 2nd ed.(Boston : Library Bureau, 1885), p.34.

64) *Ibid.* p.35.

65) E. Edwards, *Memoirs of Libraries: Including a Handbook of Library Economy*(London : Trubner & Co., 1859).

66) 베를린국립도서관 분류목록을 위한 알파벳순 색인의 요구는 1866년 그 도서관 사서였던 Schrader에 의해 주장되었다. G. Valentin in *Osterreichischer Verein fur Bibliothekswesen*, Mitterilungen, IX. Jaharg. 1905. pp.85-86.

67) Aditya K. Ohdedar and B. Sengupta, *op. cit.*, p.122.

68) H. E. Bliss, *op. cit.*, p.200.

류법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주제는 알파벳순 주제 - 목록보다는 차라리 알파벳순으로 배열되는 것이 더 낫다. 그렇다면 색인의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정말로 문제를 단순화시켜 주지만 이것이 분류법일 수는 없다. 색인만을 너무 과시했던 것은, 도서는 색인에 의해서 분류될 수 있고 만약 색인만 있다면 주제의 순서가 어떻게 될지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착각의 결과이다.<sup>69)</sup>

임의적인 기초 위에서 작성된 복잡한 분류법은 실제적인 봉사면에 있어서 균형 잃은 가치를 발전시키기 쉽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성장의 덩굴에 얽히기 쉽다. 그러한 불균형과 혼란은 결국 알파벳순 색인에 의지함으로써 상쇄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지금까지 '주제색인'의 오류를 논박하였다.

또 두드러진 하나의 결점은 Kelley 박사의 연구에서 지적된 비능률성이다.<sup>70)</sup> 분류는 구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체계 즉 시스템은 관계와 관계를 통한 조직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분리하는 조직을 손상시키고 또 결합을 파괴한다. 학문은 그 분류와 분과와 구성학문을 체계화한다. 교육은 과학과 예술의 지식을 조직하며 철학과 역사의 분과들을 조직한다. 아무리 편리하고 필요할지라도 색인은 결코 임의적이고 무질서한 배열을 체계적인 분류로 전환할 수 없다.<sup>71)</sup>

Dewey에게 색인은 분류보다 더 중요했다.<sup>72)</sup> 그래서 그는 위치가 효율적으로 색인이 될 수 있는 한 분류표에서 주제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가치를 둔다면 분류표는 색인에 종속된다. 그렇지만 분류표나 시스템은 관계를 중시하고 그 관계를 통해 조직을 구축한다. 그러므로 문헌분류법은 도서관의 서가상에 위치한 다양한 주제들의 관계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제들은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전후에 있는 다른 주제들과의 관계나 집합 속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주제가 분류표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중요하다. 알파벳순색인은 알파벳 철자 순서에 의해 수용된 순서 외에는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색인은 매우 편리하고 필요하지만 훌륭한 분류법의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

#### IV. DDC에서 상관색인의 구조

본장에서는 DDC 상관색인의 구조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그 구조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69) *Ibid.*

70) *Ibid.*, p.201.

71) *Ibid.*

72) Aditya K. Ohdedar and B. Senguota, *op. cit.*, p.123.

## 1. 상관색인의 수록용어

상관색인에 수록된 용어들은 본표와 보조표의 표목과 주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용어들과 동의어, 본표와 보조표에서 표현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문헌적 타당성'을 갖는 용어들이 수록되어 있다. 매뉴얼 주기에 수록된 용어들도 수록되어 있다.

제2보조표인 '지역구분표'에 나타나는 국가명과 대부분의 국가와 주명과 도명, 미국의 카운티(county)명, 수도와 그 밖의 주요 도시명, 중요한 지리적 특징을 가진 지역명들도 수록되고 있다.

상관색인에는 또한 역사상 시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Louis XIV과 같은 국가 원수와 Muhammad와 같은 종교의 창시자, Smith, Adam과 같은 학파의 창설자가 학파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때와 같이 인물군의 개인명도 수록되었다.

지명과 고유명(name)은 대개 미의회도서관 전거 파일에 설정되어 있는 고유명을 바탕으로 한, 영미편목규칙 제2판 개정판(AACR2002R)에 명시된 형식을 따르고 있다. 식물과 동물은 과학적인 명칭과 일반명(common name) 아래에 색인이 작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와 언어, 국민성, 종교의 형용사형으로 시작되는 어구와 교육과 통계, 실험실, 경영과 같은 표준세구분표에 의해 표현되는 일반적 개념을 담고있는 어구는 상관색인에 수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탐색어로서 그와 같은 어구형 표목이 강력한 문헌적 타당성을 가질 경우나 어구형 표목이 고유의 명칭이거나 해당 주제에 대한 유일한 접근형식을 제공할 때는 이를 상관색인에 수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sup>73)</sup>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F. Miksa에 의하면 개념색인 장치로서의 상관색인을 논의함에 있어 세 가지 점이 언급되어야 하며, 이들 모두는 어떤 점에서는 실험적이다.<sup>74)</sup> 첫째는 특정한 철학자나 문학가의 이름을(이는 엄청난 양이 될 것이지만) 본표와 상관색인에 모두 포함시키는 경우이다. 이러한 시도는 DDC 2판에서부터 시작되어 DDC 14판까지 이어졌는데, DDC 15판에서는 포기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단절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들은 개념 분류에 초점을 맞추는 DDC 내에서 이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DDC에 이러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찬반 논의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정보들은 특정 철학자나 문학가의 견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름순으로 정렬하는 것은 다른 주제의 세부항목을 포함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반면에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유명한 작품들은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그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표와 색인에 그들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것은 개념 분류라기보다 서가목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돕는 것에 가깝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더욱이

73) 오동근, DDC 연구(대구 : 태일사, 2001), p.76.

74) F. Miksa, "The DDC Relative Index,"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42, No.3/4(2006), pp.71-72.

다른 특정 주제에 연관된 인물들에 관한 작품들이 Cutter의 저자 기호법과 같은 서가목록 도구에 의해 쉽게 조정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야의 저자들에게만 예외를 강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목록을 포기하는 것은 또한 본표와 상관색인을 제작할 때 입력, 출력,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Web Dewey의 출현 및 DDC와 LCSH와의 상관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해 LCSH에서의 어떤 용어가 DDC 범주에 연관될 수 있는지를 찾아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로 DDC에 상관색인과는 별도로 보조색인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매칭시스템의 작동은 자동화된 용어 매칭 알고리즘과 LCSH 시스템과 DDC 시스템을 정형적으로 매핑한 매칭에 근거한다. 후자의 경우 결과는 교환 혹은 교차 매커니즘을 생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다른 경우의 결과물들은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오직 시간만이 이것이 노력을 기울일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기입되는 항목의 수가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DDC의 본표에서 발견되는 실제로 영원한 범주어와 분류기호들을 표현하기보다는 오직 상관색인 내에서만 존재하는 구성된 범주어를 표현한다.

## 2. 색인항목의 구성과 확장

DDC 16판 'Dewey의 서설'<sup>75)</sup>에 “본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알파벳순의 색인은 지난 54년간 (1957년 당시)에 사용한 경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아주 여러 가지 자료에서 모은 표목으로 이루어졌다.”<sup>76)</sup>고 그 색인항목 구성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초판에서는 색인항목은 2,600항목(18페이지)이었지만, 본표의 분류항목수의 증가와 함께 색인항목도 증가되고 현재 제22판에서는 928페이지이다. DDC 1판은 단지 921개의 범주어(1,044개의 고유용어로 구성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의 색인어는 이러한 분류번호를 가지지 않는 2,765개 이상의 색인어와 연결되었다. 요약하자면 색인된 개념의 수는 실제로 본표의 범주에 있는 것의 거의 3배 정도 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DDC의 본표가 더욱 더 잘 개발될수록 색인에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은’ 종류의 개념어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 색인항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75)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6th ed, edited by B. A. Custer(New York : Lake Placid Club Education Foundation, 1958), p.34.

76) *Ibid.*, pp.29-75.

- 1) 본 표에서 사용한 용어(term)를 모두 '저록어(entry word)', 즉 색인을 각각 기입한 표제어이고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2) 본 표에서 저록어의 위치는 분류기호에 따라 표시한다.
- 3) 저록어로 된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 주제, 관점 등(이런 것에 대한 상관색 인에서는 관점적인 어휘로 충칭한다)을 예로 들어서 여러 가지 기호를 나타낸다.<sup>77)</sup>

DDC를 계속 확장시키려는 편집자들의 특별한 노력으로 인해 1942년 DDC 14판이 나오기 전까지 DDC 내에 특정한 위치를 갖지 않은 많은 개념들의 수는 엄청나게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DDC 14판에 이르러서는 본표들은 거의 색인을 따라 잡았으며, 이로 인해 항목수가 46,000개를 초과하게 되었다.

DDC 15판(1951/52)은 DDC 발달과정에 있어 급격한 단절을 보여줬다. 그것은 소규모에서 중간 정도 규모의 도서관들을 위한 '표준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DDC를 재구성하기 위한 급격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노력이었다. 거의 31,000개나 되었던 DDC 14판의 본표 분류번호가 약 4,600개로 감소되었다. 그리고 상관색인(15판에서는 색인으로 불림)은 14,000개의 분류기호를 항목으로 그 수가 줄었다. 강 항목에 대한 색인 기입의 비율은(1/3이 조금 넘는) 이전 판보다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17판(1965)은 상위개념을 색인항목으로 하고, 하위개념을 상위항목에 참조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것은 이용자로부터 평판이 좋지 않아서 종래의 방식에 따른 색인을 개선하여 간행하고 있다. 18판은 17판의 방식을 도입한 형태에서 조정하고 그것이 19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관색인은 용이하게 작성된다. 그러나 어떤 분류표는 잘못된 색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DDC 17판의 색인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구입자에게 무료로 교환해 주어야 했었다.<sup>78)</sup> DDC 18판에서는 동의어 사이에 '보시오 참조'를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특히 신경이 쓰이게 한다. 더구나 DDC 18판에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동의어를 사용하였다.

즉, 승마나 요리에 관해서는 'Horse'를 사용하지만, 동물의 동물학적 측면에 대해서는 'Equidae'를 사용하였다. 또한 측정의 기호를 갖고 있지 않은 하위류의 저록에 대해서는 간단히 상위류의 번호를 부여하는 대신에 하위류에서 상위류로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Persian cats see Long-haired cats', 그리고 착오도 있다. 'Social welfare'는 실제로 'Social pathology', 'Social services', 'association'이 합쳐진 류인 기호 '360'으로 색인하고 있고, '026.34'로 색인해야 할 'Law libraries'는 '026.43'으로 색인하고 있다. 그 결과 미심쩍고도 사용하기 어려운 색인이 되어 버렸다고 Buchanan은 분석하고 있다.<sup>79)</sup>

77) 丸山昭二郎, *op. cit.*, p.76.

78) Brian Buchanan, *Theory of library classification*(London : Clive Bingle, 1979), p.103.

### 3. 상관색인의 배열과 형식

DDC 16판의 'Dewey의 서설'<sup>80)</sup>에서 배열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색인은 유사어 또는 동의어 그리고 동일어이면서 상이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함께 배열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재치가 있는 사람이면 정확한 분류기호를 꼭 얻게 될 것이다. 가령 '관세(Tariff)'에 관해서 알고 싶은 이용자는 'T'자 아래를 찾아보면 단번에 그 기호로서 '337'의 분류번호를 발견하게 된다. 이 기호는 서가, 모든 도서 및 소책자, 서가목록, 분류목록, 대출기록 등에 안내하여 주며, 이 짧고 단순한 수적 순서는 그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그 주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안내해 준다.

다음에 분류표(Schedule)에서 유 '3'은 '사회과학'을 의미하고 그 사회과학 중의 강 '3'은 '경제학'을 뜻하며 그 밑의 목 '7'은 보호 및 '자유무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기호가 의미하는 것을 모르더라도 숫자만이라도 이용자인건 분류자인건 원하는 도서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색인의 'P'자 아래서 '보호무역(protection)' 또는 'F'자 아래의 '자유무역(Free trade)', 'D'자 아래의 '관세(duties)' 또는 'C'자 아래의 '관세(customs)'를 또는 그 주제에 관한 어떤 유도어 아래에서라도 참조해보면 '337'이나 또는 그 세목의 하나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철도(railroad)'라는 말을 색인해서 찾아보면 그 뒤에는 그 말이 관련한 22개의 다른 저록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저록어는 각각 분류표 내의 그 주제를 지시하는 말과 구에 의해서 안내되고 있다. 철도에 관한 어떤 단체가 정부소유 또는 정부관리의 소속을 내용으로 다룬 것이면 사회과학의 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도서의 내용이 철도의 '경영방법', '열차운행법', 또는 '화물취급법'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뚜렷이 유용기술의 하나일 경우는 '철도종업원'의 실용편람으로서 다룬다.

Dewey가 고안한 상관색인은 본표 내에서 '측면(facet)'이나 '관점(view of point)'에 따라 분산된 주제를 색인에서 하나로 집중하는 것으로 본표와 보조표의 표목과 주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용어들과 동의어, 본표와 보조표에서 표현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 문헌적 타당성을 갖는 용어들을 망라하여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즉 색인항목들을 단어순 배열방법(word by word)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두문자어(initialism)와 약성어(acronym)는 구두점 없이 기재하여 한 단어로 표기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열한다. 또한 제1보조표에서 제7보조표의 기호는 T1부터 T7을 앞세워 표시한다. 색인항목에 표시되는 첫 번째 분류기호는 다학문적 저작에 대한 기호이다. 그 용어가 보조표에도 나타날 경우에는 보조표의 기호를 그 다음에 열거하고 이어서 해당 용어의 다른 측면들을 기재한다. 물론 다학문적인 기호가 상관색인의 모든 주제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색인항목이 애매하거나 학문적인 초점을 갖고 있지 않거나 문헌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이를 생략하게 된다. 따라서 그와

79) *Ibid.*, pp.103-104.

80) Melvil Dewey, *op. cit.*, p.34.

같은 경우에는 들어켜 표시되지 않은 항목의 반대편을 빈 칸으로 처리하게 된다.<sup>81)</sup>

색인 언어로서의 열거형 분류시스템에 있어서는 분류표는 색인어의 체계적인 배열이고, 색인어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전개하여 얻은 분류항목으로서 계층구조 속에서의 위치가 정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색인은 색인어를 계층구조에 얽매이지 않은 어휘의 집합이고, 알파벳순으로 배열한 것으로 순차적이지만 체계적이지는 않다.

동일한 단어나 어구를 갖고 있으나 서로 다른 구두점이 부가된 표목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한다.

- 용어
- 용어, 부표목
- 용어(괄호안의 수식어)
- 용어, 도치형 수식어
- 어구의 일부를 이루는 용어<sup>82)</sup>

분류기호는 본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읽고 옮겨 적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세 자리의 그룹으로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기호 사이의 빈칸은 분류기호의 일부가 아니며, 기호를 간략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제22판의 상관색인에서는 제21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라 참조'를 마련하지 않고, 직접참조로 대체하였다. 예를 들면 'International relations'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Foreign relations'를 찾아가면 'See International relations'라는 참조 대신에 '327'이라는 'International relations'에 대한 분류기호가 직접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동의어, 상위어에 대한 참조(동의어나 상위어에 셋 이상의 새로운 기호가 나타날 경우에 한함), 관련어(한 두 개의 새로운 기호만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참조를 위해 '도보라 참조(see also references)'를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매뉴얼을 보라(see manual references)'를 통해 매뉴얼의 해당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색인 중의 고딕 문자로 쓴 모든 주제는 분류표 중에서는 더 세분되어 있어 그 주제 아래에 세목이 전개 설치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이러한 모든 세목을 다시 인쇄하는 번거로움과 색인의 방대하여짐을 방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Prison labor'에 관한 도서를 가진 사람이 'Convict Labor'나 또는 'Prison contracts' 등의 표목을 색인에서 찾아보면 그것의 특정 분류기호인 '331.51'을 발견하

81) 오동근, DDC 연구(대구 : 태일사, 2001), p.75.

82)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2nd ed., edited by Joan S. Mitchell et al.(Dublin :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Inc., 2003), p.lx.



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일반적인 주제인 'Labor'만을 색인에서 찾는다고 생각한다면 'Labor political economy 331'이란 고딕과 큰 글자 기술한 저록어를 발견할 것이다. 그 다음에 분류표사에서 331이란 숫자를 찾아보면 그 대표적 기호인 331(목) 아래에는 세목인 331.51 convict labor를 발견할 수 있다.

#### 4. 색인어의 상관성(相關性)

DDC의 색인에서 한 주제의 다양한 관점을 상관성으로 보았다. 그래서 분류기호가 각기 다른 색인어가 알파벳순으로 배열되고 있다. 색인항목의 구성 중 3)에서 “저록어로 된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 주제, 관점 등(이런 것에 대한 상관색인에서는 관점적인 어휘로 총칭한다)을 예로 들어서 여러 가지 기호를 나타낸다.”<sup>83)</sup>고 하였다. 상관색인에서는 저록어로 하는 주제에 연관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열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Maps	Peace
aeronautical use	ethics
geography	philosophy
library trmt.	religion
makers	internat. law
mathematical geography	internat. relations
printing	soc. theology
publishing	
reading	

즉, 관점을 열거하는 것처럼 주제의 관련사항이 한 저록어 아래 집중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DDC의 색인은 상관색인으로 알려진 것이지만, 상관(relative)되는 것은 본표와 색인의 도치(倒置)관계이다.

DDC 18판과 19판의 용어 정의에서는 상관성(relativity)을 “주제분야에 대한 종속을 거꾸로 하고 그것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각각의 주제에 여러 가지 관점을 모으는 색인의 특성”<sup>84)</sup>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본표에서는 ‘분야--주제’라고 하는 종속관계이지만, 색인에서는 관계가 역전되어 ‘주제--분야(관점)’로 된다. 본표와 색인사이의 이런 도치관계에 의하여 본표에서 각 분야에 종속하고 분산된 주제가 색인에서는 주제의 저록어 아래 한곳으로 집중되어 있다.

DDC 22판의 용어 정의에서 상관색인이란 “DDC에 대한 색인이다. ‘상관성(Relative)’이란 말은 그들이 나타나는 주제와 학문분야간의 관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본표에서 주제

83) 丸山昭二郎, *op. cit.*

84)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9th ed., edited by B. A. Custer (Albany : Forest Press, 1976), p.lxxx.

들은 학문분야 내에서 배열된다. 상관색인에서 주제들은 알파벳순으로 리스트가 된다. 각 주제아래 주제의 학문분야는 알파벳순으로 배열된 데에서 탐색된다. DDC의 인쇄본에서는 학문분야들은 주제아래에 집중된다. 전자 버전에서는 학문분야들은 주제와 함께 부표목으로 나타난다.”<sup>85)</sup>

### 5. 색인어의 구성

각각의 색인항목은 ‘저록어’, ‘관점’, ‘분류기호’로 구성된다. 저록어의 모양과 배열은 영어의 단어 (word or words)순에 의한 주제개념의 표현문제로서 색인 언어에서의 하나의 과제인데,<sup>86)</sup> DDC에서는 다음과 방식을 따른다.

- 1) ‘명사’, ‘형용사- 명사’, ‘명사- 명사’의 형태를 저록어의 기본적인 형태로 한다.

Education	Educational
Biblical trmt.	administration
child care at home	areas
curriculum	assistance

위의 예에서 ‘Education’은 한 단어의 저록어이고, 다음 들여쓰기에서 표시되고 있는 것은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Educational’은 다음의 ‘administration’ 등과 함께 ‘형용사- 명사형’의 저록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형용사- 명사’, ‘명사- 명사’의 형태로 저록어가 되는 개념은, 단위개념으로서 저록어가 되고, ‘Administration, areas, assistance’의 항목에는 기입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Administration-education’, ‘Administration in education’ 등과 같은 저록어는 없다.

- 2) 보통명사는 복수형을 저록어로 한다. 단수형의 명사는 형용사적으로 사용해서 ‘형용사- 명사형’의 저록어가 된다.

Pattern	Patterns
lumber	art
perception	cultural processes
visual	psychology 155.9
psychology	
gen. wks 152.1423	

85)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2nd. ed., edited by Joan S. Mitchell et al.(Dublin, Ohio : OCLC., 2003), p.lxxi.

86) Helmut Felber, "UDC and terminology," *Int. Forum Inf. Doc.*, Vol.8, No.2(1983). pp.7-9.

'Pattern'은 형용사처럼 사용되어서 'Pattern lumber', 'Pattern perception'이 저록어가 되고, 다음 들여쓰기의 관점이다. 'Patterns'는 한 단어의 저록어이고, 'art' 이하는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 3) '형용사 - 명사'의 저록어는 직접형으로 배열한다.  
저록어의 형태와 배열은 단어로부터의 검색인 경우 검색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예는, 'Pattern perception-visual-psychology-gen. wks'는 [152.1423 Pattern perception], 'Patterns-psychology'는 [155.9 Environmental psychology]이다.

한편 색인항목과 분류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1) 색인항목에서는 분류항목의 복수주제, 복합주제, 또는 복합개념 등은 단어로서 분류되어 단위개념이 된다.
- 2) 색인항목의 기입어는 2차적 요소로서 다양한 관점을 수반하고 주제의 연쇄형태를 만든다. 이 연쇄는 분류항목의 단어에서 기입되어 분류항목의 계층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린다.<sup>87)</sup>

색인항목	<i>Software-Programming</i>	001.6425
분류항목	001.6425	
	Data processing-Computer program and <i>Programming-Software</i> and its use	

구분의 상위개념은 그 항목에 선행하는 위치에 표시되고 각 분류항목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즉, 분류항목에는 계층구조의 마지막 요소인 개념만이 단어 또는 구로써 기호로 표시된다. 한편, 색인항목의 기입어는 분류항목의 마지막 요소에서 기입되어, 계층구조의 아래에서 위쪽으로 연쇄를 만들어서 분류항목과는 반대되는 관계가 된다.

## 6. 상관색인에서 참조의 유형

색인항목에는 각종의 참조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유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직접 다른 색인 항목으로 인용하는 참조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Journeys see Travel(동의를 통제된 단어로)

87) 丸山昭二郎, *op. cit.*, p.80.

Keramic see Ceramic(연결성이 다른 저록어에서)  
Pollution-air see Air pollution(다른 형태의 저록어로)  
Environmental sanitation see Sanitation(상위 항목으로)  
International order see Peace(관련된 항목으로)

2) 분산참조(scatter reference)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Pollution-sanitary eng. technology 628.5  
s.a. spec. appls. e.g., Military engineering

이상과 같은 형태로, 응용, 종류, 관점, 용도, 특정한 사상(事象) 등 색인 중에 분산되어 있는 항목으로, 항목을 특정하지 않고 인용되는 참조이다. 상기의 예에서는 특정한 주제에 응용되는 공해에 관한 기술이나 공학에 대해서는, 특정한 별도의 언어에서 다시 접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학공업의 공해방지와 기술』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 참조에 따라 'chemical industries'로 접근하면 다음과 같다.

chemical industries see chemical technology  
chemical technology-sanitary eng.-technology 628.546.

가 되며, 'Pollution'에서 몇 단계를 거쳐 구하고자 하는 기호에 도달한다.

3) 일반화 참조(generalized reference)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International investments  
financial econ. 332.673  
mis. aspects see Investment  
Polluion  
water-supply eng.  
technology 628.168  
other aspects see Water supply engineering

의 형태로, 상위의 색인 항목 아래에 기입되어 있는 관점으로서의 참조다. 이 형태의 참조는 상위 항목의 아래 관점을 하위 항목 가운데 기입하는 중복을 생략하며 하위 항목에도 관점을 망라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 분야, 관점에 의한 분류라고 하는 DDC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 V. 결 론

이 연구는 DDC의 상관색인에 관한 이론적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76년에 발행된 DDC 1판에서 색인은 '주제색인'이었으며, 1855년에 발행된 제2판에서는 '상관주제색인'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상관(relative)'이란 명칭은 제2판에서 기원한다.

둘째, DDC 색인에서 채택하고 있는 색인 시스템은 '주제상관색인'이다. 상관색인은 본표나 보조표와는 정반대로 '표목 + 관점 + 분류기호'로 구성되어 있다. 상관색인은 기본적으로 각 표목아래 알파벳순으로 배열된다. 알파벳순 색인은 분류표상에서 용어의 위치를 정해주고, 주제의 관련된 관점을 모아주고, 다시 분류된 순서에 의해 분산된다. 색인은 '분류표의 체계적인 순서에 대한 알파벳순 키'이다.

셋째, 동일한 단어나 어구를 갖고 있으나 서로 다른 구두점이 부가된 표목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한다. 1) 용어, 2) 용어, 부표목, 3) 용어(괄호안의 수식어), 4) 용어, 도치형 수식어, 5) 어구의 일부를 이루는 용어 순이다.

넷째, DDC가 문헌분류이론에 끼친 공헌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것은 상관색인이다. 즉 DDC탄생만큼 중요한 가치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발명품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분산된 관련항목, 즉 분류표 전체에 걸쳐 각 학문분야로 분산되어 있는 동일한 주제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함께 모아주는 기능을 한다. 단 색인을 사용하여 분류기호를 부여할 경우, 반드시 본표에의 계층구조상에서의 주제의 위치가 정확한지를 대조확인 하여야 한다. 즉, '색인어 → 기호 → 본표' 순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DDC에서 상관색인 특정 주제에 대해 색인어가 나오고 그에 따른 분야와 부분적 특성에 관한 부분이 하위 계층으로 설정됨으로써 자신이 찾고자하는 주제에 좀 더 접근하기 쉽게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색인은 '단어 → 기호 → 본표', '단어 → 기호 → 자료'의 양쪽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DDC의 색인에는 각종 참조가 채용되어 색인만으로 특정주제의 본표안의 위치나 자료로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컴퓨터로 입력된 서지데이터의 검색에 관해서는 '단어 → 기호 → 문헌'이라는 과정에 따른 접근은 주제에 의한 검색의 유력한 수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색인의 기능은 첫째, 저록어(색인어)에 분류기호를 부여해 본표상의 주제의 위치를 지시하여 주고 본표상의 주제어에 대한 접근점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둘째, 전문가가 분류한 것과 같은 정확한 분류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능, 셋째, 특정 주제에 관해 일관성 있는 기호를 부여할 수 있는 기능, 마지막으로 분류기호 부여의 노력이 절감된다.

마지막으로 상관색인의 구조에는 1) '명사', '형용사 - 명사', '명사 - 명사'의 형태를 저록어의 기본적인 형태로 한다. 2) 보통명사는 복수형을 저록어로 한다. 단수형의 명사는 형용사적으로 사용해서 '형용사 - 명사형'의 저록어가 된다. 3) '형용사 - 명사'의 저록어는 직접형으로 배열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